

유엔 전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50년 전 항공기 납치 사건 당시 납치된 11명 송환 촉구

제네바 (2020년 2월 13일) –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50년 전 대한민국 국내선 항공기 납치 당시 강제실종된 11명의 송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촉구한다.

51명의 승객이 탑승했던 대한항공 YS-11기는 1969년 12월 11일 납치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강제 착륙했다. 1970년 2월 14일, 39명이 풀려났으나 나머지 11명의 승객 및 승무원의 행방불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요일에 39명의 탑승객이 송환된 지 50년을 맞이하게 된다. 나머지 11명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불확실성 속에 50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렸다는 점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말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시급히 이들 생사와 행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과 친척 간 자유로운 소통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전문가들은 또한 납치 당시 일부 납치대상자가 고문 및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제 의무에 따라 요구되는 납치, 실종, 또는 고문 혐의에 관한 독립적 수사가 현재까지 진행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데이터베이스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강제실종 미제 사건이 275개 등록되어 있다. 실무그룹은 이전에도 해당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회부를 고려할 것을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에 [촉구한 바 있다](#).

2014년에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국제 납치 피해자와 기타 송환이 거부된 이들을 대상으로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다.

“지금이야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해당 11명 뿐 아니라 기타 실종자의 생사와 행방을 밝히기 위해 진정한 협력을 시작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문제에 관한 우려를 표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

끝

*유엔전문가: 강제적·비자발적실종에관한실무그룹 위원 – Luciano

Hazan (의장), 백태웅 (부의장), Bernard Duhaime, Houria Es-Slami, Henrikas

Mickevičius; 고문및그밖의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에관한특별보고관Nils

Melzer;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상황에관한특별보고관Tomás Ojea Quintana.

특별보고관은유엔인권이사회특별절차제도로, 특별절차는유엔인권제도하에서가장많은독립전문가가참여한다. 특별절차는특정국가인권또는전세계에적용하는특정인권주제를다루기위해인권이사회가독립적으로사실관계를규명하고모니터링하는제도를가리킨다. 특별절차전문가는유엔직원신분이아니고무보수로자발

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여타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개인 역량을 바탕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기타 정보 및 언론사 문의는 Gabriela Guzman(+41 22 928 9452 / gguzman@ohchr.org)에게 연락바랍니다.

기타 유엔 독립 전문가 관련 언론사 문의는 The Media Unit(+ 41 22 928 9855 / mediaconsultant2@ohchr.org)으로 연락바랍니다.